VD RADAR

지식경제부 '2008년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선정

'2008년도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대상이 확정됐다.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정밀화학사업단(단장 남두현)은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2008년도 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 으로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한국포리올(주)(총괄책임자 배덕규)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은 세계적인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부품 · 소재 및 타 분야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 · 소재의 원천기술개발을 정부가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컨소시엄 참여기업은 총 7개 업체로 울산의 한국포리올(주)(대표 이창진), (주)케이씨씨(대표 정몽익), 크리에이티브퍼스(대표 신홍우)의 3개업체, 경기도의 선엔지니어링(대표 채록), GM대우(대표 마이클 그리말디), MGS(대표 채의승), 대의인티어 (대표 이명복) 등이다.

기보, 신규보증의 97% 벤처 등에 지원

기보는 올 상반기 2조2416억 원의 신규보증 중 97%인 2조 1,887억 원을 기술혁신형기업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술혁신형 신규보증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 9,710억 원 대비 11% 증가한 것이다.

특히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전략에 힘입어 기한 갱신분 등을 포함한 기보의 총 보증공급 규모(6조 4,263억 원 · 6월말 기준)에서 기술혁신형 기업 보증(5조 5,283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8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 기술혁신형기업 보증 중 대표적인 기술혁신형기업에 해당하는 벤처 · 이노비즈기업에는 전년 대비 15% 늘어난 2조 882억 원이 지원됐다.

중기청, 12년된 R&D 지원시스템 전면 개편

지난 1997년 처음 도입된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 제도' 가 확 바뀐다. 그동안 꾸준한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 오긴 했으나, 이번처럼 크게 재손질되기는 12년 만에 처음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과제 발굴부터 기술개발,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시장의 가치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R&D 성과를 한층 제고하기 위한 「중소기업 R&D, 시장밀착형 체질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년 중 기술개발 지원방식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 방안은, 물가 · 환율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R&D를 비롯한 투자축소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활력 회복에 일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고유가 등 외부충격에 의한 창업, 일자리 및 에너지난 등 현안 문제에 대해 R&D 투자 측면에서 즉시 시행이 필요한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적시에 대응하면서, 그동안 중소기업 R&D에 제기된 '목표성 부족, 단순 개발보조' 라는 일각의 비판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활동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강구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서울디지털단지 근로자수 10만명 돌파

구로공단에서 첨단 벤처기업 단지로 '상전벽해' 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근로자수가 10만 명을 돌파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6월 26일 발표한 '국가산업단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구로디지털 단지의 고용인원은 지난 4월 말 현재 10만 763명으로 전월보다 1,156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 숫자는 과거 구로공단 시절 최대 15만 명에 달했으나 이후 섬유 및 인쇄산업 불황으로 매년 급격히 감소했다. 이후 디지털산업단지 육성 정책을 기반으로 이곳에 아파트형 공장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지난 2003년 4만 명을 약간 웃돌던 고용 인원은 5년사이 2배 이상 치솟았다. 아파트형 공장은 현재 69개로 현재 짓고 있는 공장도 15개에 달해 고용 인원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디지털단지에는 첨단 벤처기업 및 소프트웨어 기업이 모두 7,755곳이 입주해 있다.

산단공측은 "등록된 근로자는 10만 명이지만 단지를 드나드는 해외 바이어 및 거래처 관계자를 포함하면 유동인구는 30만 명에 달할 것" 이라고 밝혔다.

KOBACO, 방송광고지원 대상 혁신형 중소기업까지 확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는 지난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 대상을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KOBACO는 1998년 7월 '벤처기업 방송광고 지원' 을 시작한 이래, 2006년에는

지원대상을 '벤처 · 이노비즈 기업'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정상가 대비 70% 할인된 금액으로 방송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 KOBACO 관계자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 사업으로 한 해 동안 150개 내외의 중소기업이 약 100억 원 대(정상가 기준)의 방송광고를 집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10회 정보통신 벤처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중소기업청은 지난 7월 22일 "10회 IT벤처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 304개의 창업아이디어들 간에 치열한 경쟁을 벌인 이 대회는, H/W, 멀티미디어, S/W, IT서비스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경진대회 결과 대상은 최선영씨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클럭 동기 시스템', 최우수상에는 임현수씨가 제안한 "ReverseAjax 기술을 활용한 검색어 매칭 인스턴트 커뮤니티서비스"와 김태동씨의 "SMS매직뱅킹 PATCH 프로그램"이 선정되었다. 그 밖에 안상진씨의 "대화형 IPTV 콘텐츠 지원을 위한 레이저포인트 인터페이스" 등 17개의 창업아이템들이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하여 성공가능성이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금년으로 10회 째를 맞는 IT벤처 창업경진대회는 1999년 舊 정보통신부에서 IT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촉진을 위해 처음 시작하여 금년부터 중기청으로 이관된 행사로서 지난 해까지 총 273개의 우수 창업아이템이 발굴되었으며 120여 개 기업이 창업하여 누계 매출액이 2,45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제1호 국립연구기관 發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탄생

국립연구기관에서 보유한 신기술을 출자하여 직접 사업화를 추진하는 제1호 국립연구기관 發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탄생했다.

중소기업청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양관측시스템 기술(무인비행체 및 무인선박에 의한 해양환경 모니터링 및 제어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설립한 '(주)해미'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록을 승인했다.

이는 민간 연구기관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금년 2월 등록한 (주)리스텍비즈에 이은 두 번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대학 · 연구소(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 법인 등)가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하는 주식회사로서 「벤처특별법」이 개정(2007년 4월 27일)되면서 도입된 제도이다.

중소기업청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추가개발에 소요되는 자금도 2.5억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 전문 투자조합 결성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모태펀드 2008년 2차 사업에 250억 원을 출자하여 문화콘텐츠 전문 투자조합 결성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진흥기금 폐지 이후 동 기금을 한국모태펀드에 출자하여 문화콘텐츠 전문 투자조합 결성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자본의 문화산업 투자 유도에 앞장서 왔다. 2008년 7월 현재 총 830억 원을 투자조합에 출자하여 15개 조합 2,538억 원 결성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 2008년도 1차 사업 심사 후 선정된 3개 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올 8월 420억 원을 추가 출자하여 1,260억 원 결성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2차 사업을 통해 결성된 전문 투자조합은 영상, 음악, 공연예술, 게임,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분야에 투자하게 되며, 이를 통해 국내 콘텐츠산업 활성화 및 다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문화산업 분야 중 취약분야로 거론되는 애니메이션(캐릭터 포함), 공연예술, 게임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최대 40%까지 우대함으로써 문화 콘텐츠 전 분야의 종합적 육성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출자를 희망하는 운용사는 한국벤처투자(주) 홈페이지(www.k-vic.co.kr)를 참고하여 8월 20일(수)까지 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최종 선정결과는 한국벤처투자(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프리보드시장, 초기성장기업 시장으로 자리매김

한국증권업협회가 개설 · 운영하는 프리보드시장이 지난 7월 13일 부로 출범 3주년을 맞이했다. 프리보드시장은 자본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소 ·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5월 출범했다.

금년 들어 7월 13일 현재까지 신규지정 기업수(19사)가 전년도(7사) 대비 2.7배 증가하는 등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기업유치 노력에 힘입어 최근 시장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출범이전 제3시장 시기인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신규지정 기업수가 지정해제 기업수보다 늘어나는 등 초기성장단계에 있는 중소 · 벤처기업을 위한 자본시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프리보드시장의 시가총액은 2008년 7월 13일 현재 출범전 5,809억 원에서

VD RADAR

8,860억 원으로 53% 증가하였고, 일평균 거래량도 6.2만주에서 12만주로 94% 증가하였다. 특히 일평균 거래대금은 출범전 0.54억원에 비해 1.8억 원으로 233% 증가하였다.

지식경제부, 2020년까지 50개 세계선도 품목 개발

지식경제부는 2020년까지 1조원을 투자하여 50개 소재품목에 대해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7월 24일 2008년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자 지정식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시장 선점과 수입대체 효과가 지대한 핵심소재 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된 R&D 프로그램으로, 장기간의 연구와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소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발지원을 위해 10년간 추진된다.

지경부는 지난해 10개 과제를 선정한데 이어, 금년 추가로 "고융점/백금족 희유금속의 초고순도화 기술개발" 등 10개를 선정하였으며, 2011년까지 50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들은 매년 20억 원씩 10년간 200억 원이 투입되며, 2020년까지 50개 과제에 대해 1조 원이 투입된다.

금번 선정한 10개 소재분야는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수요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하였으며, 향후 세계시장 규모가 약 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여성 예비창업자를 위한 전자상거래업 강좌 개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8월 25일(월) ~ 29일(금)까지 소자본 창업에 관심이 있는 여성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업강좌를 무료로 개설한다. 교육생 모집과 접수는 8월 20일까지이며, 교육대상은 여성 예비창업자 30명으로 기존의 창업자는 제외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강좌는 인터넷 사업아이템 선정과 창업절차, 오픈마켓 운영요령, 쇼핑몰 고객관리, 마케팅에 대한 이론강의와 함께 쇼핑몰 제작, 관리, 상품등록에 관한 실습이 병행되어 전자상거래업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강좌는 여성만을 특화한 창업교육 과정으로, 교육 수료자에게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와의 1:1 연계를 통한 창업멘토링을 실시하여 창업상담 및 컨설팅과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후 안정화까지 지속적인 경영지도로 여성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강좌신청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sbdc.or.kr)에서 접수하며 선발기준에 의해 정원수(30명)대로 선정한다. 문의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센터(TEL. 1588-5302)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센터지원실(TEL. 2007-6928)로 하면 된다.

지역벤처

대구시, 유럽 다국적 기업 트럼프 투자 유치

지난 7월 14일(월) 유럽지역 투자유치활동과 UCLG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ASPAC(아 · 태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5박6일의 해외일정을 떠난 대구시 김범일 시장이 현지시간으로 16일, 독일계 다국적 기업인 트럼프(TRUMPF)사 오스트리아 법인(파싱)을 방문하여 트럼프사의 외자를 포함하여 대구지역에 3천만 불을 투자하는 트럼프&신성금속산업&대구시 3자 투자 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올해 안으로 구체적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하고, 내년 중 사업부지가 공급되는 대로 20,000㎡에 3천만 불을 투자하여 금속절곡기 제조업체를 건립할 예정이다.

앞으로 신성금속산업의 영업 및 생산경쟁력과 트럼프사의 기술력을 접목하는 전략적 제휴로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매출실적과 1천여 명의 직 · 간접 고용효과 및 8백억 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이달의 과학기술인 김해진 박사

대전광역시는 2/4분기 이달의 과학기술인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해진 책임연구원(42세)을 선정했다.

김해진 박사는 지난 2002년부터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근무하면서 특히, 수소저장재료 연구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고효율 수소에너지 제조저장, 이용기술 개발사업'의 수소저장분야 '다공성 나노 재료를 이용한 수소 저장기술 개발' 중과제 책임을 맡아 탁월한 연구수행으로 국가연구개발 우수과제 100선에 선정된 바 있다.

또한, 2006년 말부터 시행한 OECD 산하기구인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수소저장 재료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Task 22의 한국측 대표로 나노 재료를 이용한 수소저장 기술의 국제협력에도 참여해 한국의 나노과학 기술 위상을 세계에 알린 공로가 인정돼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충남대, (주)크린썬텍과 기술이전 계약 체결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도진)은 나노공학부 원창환 교수의 '자전연소 합성법에 의한 규소분말과 주괴(ingot)의 제조방법' 외 1건을 (주)크린썬텍(대표이사 박홍순)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술은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을 제조하기 위해 원재료인 규소분말을 자전연소합성법으로 제조하는 기술이다.

이번에 이전된 기술은 선급기술료로 3천만 원을 받기로 했으며, 해당 기술제품이 상품화될 경우에 총 매출액의 3%를 지급받기로 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국내최고 미래형 산단 개발

내년 1월 공급 예정인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가 국내 최고의 미래형 산업단지로 개발될 전망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공원·녹지를 전체 개발 면적(147만 4,206㎡)의 22.3%(32만 8,610㎡) 확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당초 12%였던 방현지구의 녹지율을 15%까지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 · 연구 및 사업화 시설용지는 전체 면적의 11.9%인 17만 4,805㎡가 배정됐으며, 산업시설 용지는 전체 면적의 23.9%인 35만 1,860㎡다. 산업시설 용지는 생산용지 29만 2,728㎡, 아파트형공장 4만 420㎡, 커뮤니티지원 1만 8,712㎡ 등의 순이다.

시는 특구 1단계 중 대덕연구단지 서측에 위치한 방현지구(28만㎡)에는 연구개발 및 커뮤니티 기능을, 신성지구(26만 5,000㎡)는 특구 활성화에 따른 벤처기업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벤처집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죽동지구(97만 3,000㎡)는 생산과 연구개발, 상업, 주거 등의 기능이 합쳐진 남부거점복합단지로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대덕특구 벤처기업 항공우주 · 첨단로봇 등 전략산업 매출액 상승 두드러져

원유, 원자재 등의 가격상승으로 세계 경제가 공황 위기에 빠져 있는 가운데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벤처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대전시가 '시 포상조례'를 개정, 매출 1,0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포상 기준을 완화해 10일 시상하는 '매출의 탑'에서 항공우주, 지능로봇, IT 등 첨단 벤처기업들이 대거 수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대전시는 항공기 시뮬레이터, 항공전자 및 S/W 지능형 경계로봇을 생산하는 ㈜도담시스템즈(대표 장명광)는 매출 규모가 2006년 122억 원에서 지난해 278억 원으로 증가해 128%의 신장률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울산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MOU체결

국내 최대 응용기술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울산지역 산업진흥 인프라 구축에 적극 참여한다.

울산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7월 25일 '울산지역 산업진흥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울산시는 2단계 지역전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생기원은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환경산업 분야 관련, 친환경청정기술센터 건립 및 운영과 기후변화 협약대응 기업지원사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사업 등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또한 생기원은 친환경청정기술센터 건립 및 운영을 통해 확보된 인프라 및 인력을 바탕으로 울산 지역의 생기원 거점 조직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키로 했다.

양 기관은 특히 △울산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의 발굴, 수립, 추진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연구인력, 기술 인력의 상호교류 및 협력△신기술, 신제품 정보의 교류 및 자문 △연구시설, 시험 · 생산 장비의 공동활용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석유품질관리원 연구센터, 바이오연료 혁신기술교육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연구센터는 바이오연료 관련업체의 기술력 향상 및 산업체 기술지원을 위해 바이오연료 혁신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6월 26일 실시된 교육은 ▲한국의 수송용 바이오연료 현황 및 전망 ▲외국의 바이오연료 시장동향과 경제성 분석 등이 발표됐다.

또 초고유가에 대응한 에너지 안보차원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서 바이오에탄올 · 바이오부탄올 · 해양바이오매스(해조류, 생선부산물 등)의 연구동향 등이 소개됐다.

특히 상용화된 바이오디젤의 경우 원료다양화를 위한 팜유, 유채유, 자트로파 등에서 유래된 바이오디젤의 품질 · 성능평가 연구결과도 소개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REACH 대응 산 · 연 · 관 간담회 개최

EU의 新화학물질관리제도인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사전등록이 지난 6월 1일 부로 본격 가동되었다.

VD RADAR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환경부, 중소기업청은 지난 5월, 「REACH 지원 공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행사로 「REACH 주간」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

조석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는 중소기업의 REACH에 대한 인식 부족과 대응 어려움에 대해 모두 동의하였으며,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였다. 화학시험연구원의 조기성 원장은 아직까지도 중소기업은 50% 이상이 REACH에 대해 알지 못하며, 이 중 40% 이상은 REACH 대상에 해당되는지 인식하지 못하며, 10% 정도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기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졸업식 가져

한국전기연구원은 7월 18일 오후 창원 본원에서 박동욱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직원과 (주)루텍 정창용 대표, (주)펄스콘 임한준 대표 등 2개 업체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보육센터(BI) 입주업체 졸업식을 가졌다.

루텍(www.rootech.com)과 펄스콘(www.pulsecon.co.kr)은 지난 2002년 2월 1일과 2005년 9월 13일 각각 전기연구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했으며, 자사의 기술을 상업화하고 굳건한 회사 기반을 이루는데 성공하여 이날 졸업식을 갖게 됐다. 루텍은 전기제어계측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주력으로 하는 디지털 전력계측전문기업으로 다년간 정밀전력계측, 디지털 신호처리, 산업용 통신기술 등의 전력감시제어 분야에서 제품개발과 상품화를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펄스콘은 전기 · 전자 장비전문 제조회사로서 한국전기연구원이 기술이전한 캐패시터(Capacitor) 충전용 고전압전원장치를 주축으로 고전압 전원장치와 펄스 응용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만공업기술연구원(ITRI)과 공동심포지움 개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7월 24일(목)부터 이틀간 대만 신주시(Hsin Chu, 新竹市)에 위치한 대만공업기술연구원(ITRI :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에서 공동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2007년도 10월 생명공학 분야의 공동협력연구, 인적자원 및 정보교류 등 MOU 체결이후 실질적인 연구협력을 실천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양 기관의 전문가(KRIBB 3명, ITRI 5명)들이 바이오마커, 천연물 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24일 연구자별 발표(1부, 2부)와 25일 전체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한편, 1973년 설립된 대만공업기술연구원(ITRI)은 바이오, 나노, 의약 등 연구분야와 약 15,000명의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벤처

자동차, 하늘을 꿈꾸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모여 설립한 벤처회사 테라푸기아(Terrafugia)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모형(프로토타입)을 선보였다.

'트랜지션(Transition)' 이라 명명한 이 장치는 설계의 기본 목표가 '착륙한 후에 날개를 접고 바로 도로로 나갈 수 있는 경비행기' 이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 보다는 비행기에 가깝다.

그러나 육지에서는 평소 자동차로서 주행을 하고 공항에서는 비행기로 변신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차량이다. 육지에서는 시간당 최고 속도 216km, 하늘에서는 192km의 순항 속도를 낼 수 있다.

한번 연료를 채우면 최고 8시간 동안 공중에 머물 수 있으며 비교적 연료를 적게 소모한다는 게 업체측의 설명이다.

현재 보완 작업을 거쳐 오는 2009년 판매 예정이며 약 15만 달러로 판매 될 예정이고 2012년까지는 대량생산라인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가까운 미래, 자동차와 비행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공기없는 타이어 개발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와 벤처기업인 레질리언트 테크놀로지(Resilient Technologies)사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타이어를 개발, 이동 중에 타이어가 펑크 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회사는 미 국방부로부터 4년간 180억 원을 지원받아 연구한 끝에 6각형의 벌집 모양이 가장 충격을 잘 흡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번에 개발된 타이어는 도로에 닿는 바깥쪽 고무와 바퀴 휠 사이를 벌집 모양의 특수플라스틱으로 가득 채웠다.

이 벌집 구조는 차체의 하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열과 소음을 대폭 줄이는 역할을 한다.

공기 없는 타이어는 달 탐사에도 이용될 예정인데 달 탐사 차량용 타이어는 특별히 피아노 줄을 뜨개질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일반 차량에 장착하면 찌그러지기 십상이지만 달 탐사 차량은 타이어 하나가 30㎏ 정도만 지탱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